

보도설명자료

(17.7.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세계원전 3強’서 스스로 발빠는 한국”
(7.27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21조원 영국 원전 수주戰에 한국은 신고리 5·6호 모델로 경쟁
- 전문가들 “정부 탈원전 정책 발표로 수출 전쟁서 뒤처질 우려”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원전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전수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됨
- ☐ 아울러, 정부는 원전 수출 이외에도 세계시장 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
- 2016년 기준, 전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55.3%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(BNEF, 2017)하고 있으며,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980만개에 달함(IRENA, 2017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안응수 서기관 (044-203-5331)
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 (044-203-5160)